

## 전남도, 코로나19 재유행 차단 및 방역·의료 대응 총력

### 감염 취약시설 관리 강화·원스톱 진료기관 확충 등 선제 대응

전남도가 코로나19 6차 유행이 본격화됨에 따라 도민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하도록 방역과 의료 대응과 재유행 확산 차단 등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25일 전남도에 따르면 당초 8월에서 10월 중으로 예상했던 재유행이 BA.5 등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정점 시기가 단축되는 등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따라 하루 확진자 2천 명 이상까지 나올 것에 대비해 재유행 확

산 차단을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우선 요양병원·요양원 같은 감염 취약시설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진단키트,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지원, 감염병 유입을 최대한 차단하고 확진 환자는 신속하게 찾아내 확산을 방지할 방침이다. 공공기관의 모임·행사는 여건에 맞게 조정한다. 일상 속 방역수칙을 준수해 술선수범토록 하고, 상황에 맞게 근무방식도 분산·축소근무 등

으로 조정한다. 지역 행사·축제의 경우 생활방역 수칙 준수 캠페인을 함께 펼치고, 식품접객업소는 기존 보관 중인 체온측정기 재사용, 밀집·밀접·밀폐 등 3밀 환경 개선을 지도하기로 했다. 확진자 폭증으로 현재의 보건소 위주 대응이 어려워지면, 시군별 임시 선별 검사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주말·공휴일 운영과 운영 시간 연장에 나선다.

현재 231개소인 원스톱 진료기관을 7월 말까지 300개소 이상까지 확충해 가까운 동네 병원에서 더욱 신속한 진료와 처방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이는 코로나19가 일반 의료 체계로 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위중증 환자가 집중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치료 병상을 확보하고, 관리도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위중증환자 병상 22병상을 확보한 상태다.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병상 가동률은 37.5%로 대응 역량은 아직 안정적이다. 하루 환자 3천명 이상 발생에도

대비한다. 이를 위해 예비로 300병상을 사전 확보하고, 공공의료원 및 민간 의료기관과 협조 체계를 구축해 일반의료체계 내에서 원활히 입원 치료를 받도록 대응하기로 했다. 노인요양병원 요양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은 외부로부터의 감염 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먹는 치료제를 신속하게 처방해 위중증으로 이환을 예방하기로 했다. 문권욱 전남도 감염병관리과장은 "그동안 수많은 방역의 고비들을 슬기롭게 극복한 경험과 충분한 대응 역량을 갖췄기 때문에 대응이 가

능한 수준"이라며 "도민들도 차분하고 질서 있게 대응하면서 개인방역 6대 중요수칙 준수를 통해 자신과 가족, 이웃을 보호할 것"을 당부했다. 전남도는 50세 이상 도민과 18세 이상 기저질환자 등까지 4차 예방접종 대상자로 확대된 만큼 사망자 및 중증 환자 발생 방지를 위해 예방접종에 참여할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접종 희망자는 예약 누리집이나 전화 1339를 통해 예약하고 접종할 수 있다. /서용운기자

## 기아, 준중형 SUV '2023 스포티지' 출시...LPi 모델 추가

### 우수한 유지비의 LPi 엔진 탑재...초고유가 속 고객들의 선택 폭 확대

기아는 국내 준중형 SUV 판매 1위 스포티지의 연식변경 모델 '2023 스포티지'를 출시하고 26일부터 판매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2023 스포티지는 경제성이 뛰어난 LPi 엔진 탑재 모델을 선보이고, 고객들이 선호하는 편의사양을 기본화 한 것이 특징이다. 최근 국내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천원을 돌파하는 등 급격하게 상승하는 상황에서 기아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유지비가 강점인 LPi 모델을 베스트 셀링 SUV 스포티지에 추가함으로써 고객 선택의 폭을 한층 더 넓혔다. 스포티지 LPi 모델은 스마트스트림 I2.0 엔진을 탑재했으며, 최고출력 146마력(PS), 최대토크 19.5kgf·m, 복합연비 9.2km/ℓ의 우수한 성능을 갖췄다. (\* 17인치 휠 기준) 이로써 스포티지는 가솔린, 디젤, 하이브리드에 이어 LPi 엔진까지 탑재하며 전체 엔진 라인업을 완성하게 됐다.

또한 기아는 트립별 고객 선호사양을 기본으로 적용해 고객 만족도를 높였다. ▲트렌디에 하이패스 시스템 ▲프레스티지에 ECM 룸미러 ▲노블레스에 스마트폰 무선충전 시스템 ▲시그니처에 메탈 페달 및 도어 스크랩을 기본화 했다. 이와 함께 하이브리드 모델은 후석 승객 알람을 전체 트립에 기본 적용해 안전성을 강화했다. 판매 가격은 2.0 LPi 모델 ▲트렌디 2천538만원 ▲프레스티지 2천714만원 ▲노블레스 2천965만원 ▲시그니처 3천284만원이다. (\* 개별소비세 3.5% 적용 기준) 1.6 가솔린 터보 모델은 ▲트렌디 2천474만원 ▲프레스티지 2천651만원 ▲노블레스 2천901만원 ▲시그니처 3천220만원이며, 2.0 디젤 모델 ▲트렌디 2천724만원 ▲프레스티지 2천901만원 ▲노블레스 3천151만원 ▲시그니처 3천470만원, 1.6 터보 하이브리드 모델 ▲프

레스티지 3천163만원 ▲노블레스 3천330만원 ▲시그니처 3천649만원이다. (\* 가솔린 및 디젤 모델은 개

별소비세 3.5%, 하이브리드 모델은 세제혜택 및 개별소비세 3.5% 적용 기준) 기아 관계자는 "지난해 7월 출시한 스포티지는 고객들의 압도적인

성원으로 1년만에 국내 누적 판매 5만대를 돌파하며 침체됐던 준중형 SUV 시장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며 "LPi엔진 탑재로 라인업을 확장하고 상품 경쟁력을 강화한 2023년형 모델 출시를 통해 스포티지 열풍에 한층 더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문수기자

전남 산학연관, 무인이동체 미래전파 기술 워크숍 개최 전남도립대는 최근 학교 대강당과 인공지능드론학과 실습장에서 산·학·연·관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2022 무인이동체 미래전파 기술 워크숍'을 개최했다. 올해 6회째를 맞은 이번 워크숍은 무인이동체 관련 지역 유관기관과 대학의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진행됐다. 전남도와 한국전자과학회를 비롯해 전남에 자리한 국립전파연구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전력공사,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전남도립대학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등 8개 유관기관·대학이 행사를 공동 주최했다. 워크숍에선 전파를 이용하는 드론, 자율로봇, 무인잠수정 등 미래 핵심 산업으로 주목받는 무인이동체의 기술개발 현황과 실증 사례가 3부(세션)로 나눠 발표됐다. 1부 '이음5세대(5G)와 자율주행차 정책동향'에 이어, 2부 무인 로봇과 무인잠수정 기술 개발 및 실증 사례, 3부 드론 활용기술개발 현황 설명이 이어졌다. /서용운기자



기아는 국내 준중형 SUV 판매 1위 스포티지의 연식변경 모델 '2023 스포티지'를 출시하고 26일부터 판매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2023 스포티지는 경제성이 뛰어난 LPi 엔진 탑재 모델을 선보이고, 고객들이 선호하는 편의사양을 기본화 한 것이 특징이다. /기아 제공

남성갱년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 그린맨 파워

나이 들어도 자신있는 남자 Project

삶의 활력을 찾자!  
남성의 자신있는 삶!

기력이 없는 갱년기 남성 건강에 활력을 주는 건강기능식품  
MR-10과 소팔메토, 아연의 복합기능성 제품으로  
남성갱년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맞춤형 솔루션~!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